현불논단

기세간의 소중함

〈器世間〉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기후변동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
심각한 식량재난으로 연결될 수도

우리네 삶 다른 생명 연결돼 있어
환경파괴는 인간 생존 위협 칼날

생명 하나하나 더욱 소중히 하고
주변 변화에 경각심 놓지 않아야

"현재 시간당 강우량 30~6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비탈면, 축대붕괴 징후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 경부터 최근의 며칠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울렸던 안전 안내 문자의 내용이다. 시간당 강우량이 더 많은가의 여부만 다를 뿐, 행안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발송했다.

최근의 장마는 온순한 우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스콜성 폭우의 성향이 강해진 까닭이다. 올해 장마기간에 내린 비의 대부분은 이 스콜성 폭우에 가깝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잠깐 내비친 태양은 어김없이 감당하기 힘든 폭염을 동반했다.

기후재난이라 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사태이다. 실은 사태라기보다는 재난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재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인류 차원의 위기에 가깝다.

긴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은 불과 최근 100여 년 동안 그 이전의 모든 시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자연을 파괴했고, 도시를 건설했고, 산업화를 성취했다. 이전의 모든 시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삶의 양식이 변화했고, 그 대부분은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폭력적인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인구의 증가, 인간 영역의 확대를 제약하는 협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대로 환경의 파괴 그리고 다른 생명 존재들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과 파괴를 낳았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들이 쉴 새 없이 제안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와 나라에서는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들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야기한 특별하고 일시적인 장마로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변동으로 인한 재난에 직접 직면하고 있는 집단, 농어업 부문으로 가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동해 바다와 서해바다에서도 이미 아열대성 어종이 적잖게 포획되고, 남부지방에서는 아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중부지방에서는 남부지방의 주산물들을 재배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으니 좋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이나 어종은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도 우리 삶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급격하기까지 하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식량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네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모두 다른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주변환경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뭇 생명들의 삶은 뭇 생명들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기세간(器世間)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기세간 곧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그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 생명들의 파괴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로 들이닥칠 것이다.

인류의 문제, 혹은 개인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존재에 대한 책임의 회피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요구하셨다. 과학적인 도구가 없던 그 시절에도 그러했다. 오늘날에는 과학도구가 발달하여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영역확대가 가져오는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 당연히 우리 주변의 생명 하나하나와 환경들이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무심결에 살지 말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지 않아야 보살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하물며 삶과 생명의 조건을 바꾸는 장마를 바라보는 눈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社說

대학생 전법은 범불교적 화두

201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종교인구 조사는 불교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다. 하나는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었고, 처음으로 무종교인 인구수가 종교인구를 추월했기 때문이다.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가 타종교보다 안 좋은 것은 미래 불교를 이끌 영유아 · 어린이 · 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적어서다. 그나마 적었던 영유아 · 어린이들이 10년 뒤 현재 고등학생~대학생이 될 시기가 됐다. 지금 이들에 대한 전법 · 포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지난 7월 6일 출범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7월 19일 집행위원회 · 정책기획단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불교 학생회가 있는 대학은 58곳뿐이다. 사실상 300여 대학은 캠퍼스 포교의 불모지와 같다.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최우선적으로 1교구 1대학 지원을 목표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상월결사 대학전법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국 100개 대학에 불교 학생회를 설립하고 회원 2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전불교도들이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실제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범종단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8월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를 초청해 대학생 전법 현황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는 소속 종단이 없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전해진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이다. 지금 전법의 기틀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한국불교 미래는 없다. 붕괴된 계층포교 부흥의 징검다리인 대학생 전법에 범불교계가 나서야 할 때이다.

불교계, 호우 수재민에 자비 손길을

'극한호우.' 올해 기상예보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기후 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면서 한반도 역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풍수해를 겪고 있다.

실제, 올해 장마 기간 광주 · 전남 지역에만 최고 100㎜ 넘는 비가 쏟아지며 역대 4번째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인 590.8㎜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집계에서 최다로 기록됐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는 유독 재산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예천에는 산사태로 많은 주민들이 숨졌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실상 인재여서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로 인해 46명이 숨졌고, 4명은 실종돼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유산을 비롯해 전통 · 일반사찰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사찰 문화재와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수마로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들이다. 7월 20일 현재 일시 대피자(누적)는 15개 시도에서 1만 1544가구 1만 7810명으로, 이 중 2093가구 3193명이 귀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이 발 빠르게 구호단을 구성해 구호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사찰들의 구호성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불자들도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내어주길 바란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도 한 송이 연꽃이 된다

연꽃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7월이다.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연꽃이 함초롬히 피어나면 새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벌들은 간밤에 젖었던 날개를 말리느라 붕붕거린다. 대기는 한층 싱그러워지고, 세상은 바야흐로 순수해진다.

진흙탕 속에서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꽃, 흙탕물이 꽃잎에 묻지 않는 꽃,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연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 특히 송대 도학(道學)의 문을 연 주돈이(周敦頤)의 연꽃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나 홀로 연꽃을 사랑하나니, 진흙탕에서 피어났으나 오염되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었으나 요염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줄기 속은 비어 통하고 밖은 곧으며, 덩굴로 뻗지 않고 가지를 치지 않는다. 꽃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으며, 물 가운데 우뚝 서 있으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으나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라고 연꽃을 찬탄했다.

육지나 연못에는 아름다운 꽃이 얼마든지 있지만 주돈이가 연꽃을 사랑한 것은 혼탁한 세상을 초월하여 곧고 청렴하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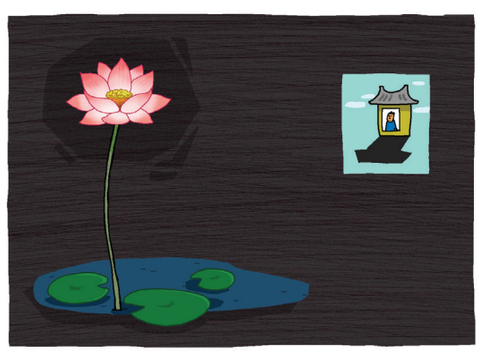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록 악취 나는 부조리한 환경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가지를 널리 뻗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파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지도 않는다.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에는 매몰차지만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굳건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고하고 청량한 군자의 향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그것은 연꽃의 빈 댓 속처럼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본래 허공이다. 마음이란 원래 광대무량(廣大無量)한데 진흙탕 속에서 욕심, 분노, 치정 등 온갖 오물을 묻혀 주먹만 해진 것이다. 주먹만 한 마음속에는 오물이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한다. 마음이 오물로 막혀 있으면 연꽃 향기는 뚫고 나올 수가 없다. 편견과 사심이 없는 텅 빈 마음에서 청정법신(淸淨法身)의 향기가 퍼져 나온다.

연꽃 향기는 진하지 않고 은은하지만 그 향기는 멀수록 맑다. 청정한 진리의 말씀은 현란하거나 요사스럽지 않으며, 의무나 책임을 짓게 하는 중압감을 안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담백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저절로 그 말씀이 몸에 배어들어 나도 한 송이 연꽃이 된다. 그 불법의 말씀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온갖 미물에게까지, 시대를 넘어 후손에게까지 맑고 청정한 향기를 피워내는 것 아닌가.

푸르른 연꽃 밭을 걸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를 나도 지어본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